

삼성전자, LCD 패널 영업실적 세계 1위

2007년 2/4분기 영업이익률 9.0% 기록 ... 상반기 매출은 68억달러

삼성전자가 최근 LCD 패널분야 매출과 영업이익률에서 모두 주요 경쟁기업들을 제치고 수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발표된 글로벌 LCD기업 2007년 2/4분기 영업실적에서 삼성전자는 9.0%의 영업이익률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.

삼성전자에 이어 타이완 CMO와 AUO가 각각 7.3%, 6.5%로 2위, 3위에 랭크됐고 일본 Sharp 6.8%, LG필립스LCD가 4.5% 등으로 뒤를 이었다.

2007년 1/4분기 영업이익률 랭킹은 Sharp(7.5%), 삼성전자(3.0%), CMO(1.3%), AUO (-5.3%) 등의 순이었고, 2006년 4/4분기에는 삼성전자(10.0%), Sharp(7.9%), AUO(3.0%), CMO(2.3%) 등의 순위를 나타냈다.

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분기 만에 영업이익률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.

다만, 삼성전자는 LCD를 회사 TV세트 사업부문 등에 판매할 때 매출은 잡지 않고 영업이익만 계산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실제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감안돼야 한다.

또 삼성전자는 최근 발표된 디스플레이서치 보고서에서 6월 LCD 전체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5% 늘어난 14억달러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26개월 연속 1위를 고수했다. 10인치 이상의 대형 매출도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돼 수위를 지켰다.

삼성전자 관계자는 “2007년 상반기 LCD 매출 68억달러, 면적기준 출하 규모 283만㎡(시장점유율 22.5%)로 1위를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”면서 “LCD 분야는 2008년 하반기까지도 타이트가 지속되는 등 호황 흐름을 보일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8/13>